



[산업] SK텔레콤 10대 저격 브랜드 '0' 론칭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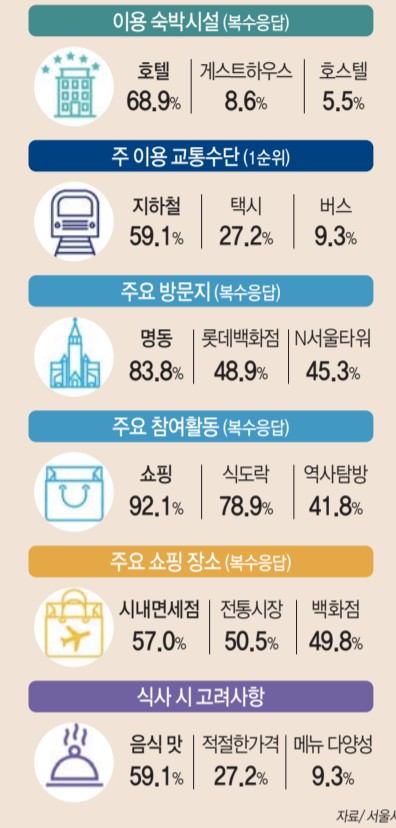
Life

[라이프] 롯데백 건대점 VR테마파크 '몬스터VR' 오픈 11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지하철 타고 명동 쇼핑 즐겨

올해 상반기 서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방문해 평균 5.66일 머물러 주로 화장품·의류·식품 쇼핑

올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대개 명동을 방문해 쇼핑과 식도락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상반기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오락·휴가'(55.3%)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평균 5.66일 머물렀다. 명동(83.8%)을 가장 많이 방문했고, 쇼핑(92.1%)과 식도락(78.9%)을 즐겼다.

주 쇼핑 장소는 시내면세점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시장 방문율은 전년 동기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50.5%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화장품(68.1%), 의류(55.1%), 식품(39.0%)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도락 관광부문에서는 대부분 한식(94.3%)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음식(64.5%)과 카페·커피전문점(49.6%)도 선호했다. 음식점 선택 기준은 맛이 83.5%로 가장 높았고, 가격(39.5%), 메뉴 다양성(28%)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관광 정보는 모바일 인터넷(57.9%)을 통해 얻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 소셜미디어(36.5%) 활용도 높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호텔(68.9%)과 게스트하우스(8.6%)에 머물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59.1%), 택시(27.2%) 순이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해 평균 3만2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 편의성 개선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절 기념음악회. /서울시

'한반도 평화 염원'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광장서 공연 개최해왔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5일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서울시향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음악회는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즐길 수 있다. 5000석 전석 무료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광복회 회원은 특별 손님으로 초청된다.

서울시향은 광복절을 경축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음악회 주제는 '한반도 평화'이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팬텀싱어2 우승팀인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포레스텔라',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협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음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광장, 모래사장 펼쳐진 휴양지로 '변신'

서울시 3색 '문화로 바캉스'

서울광장 인공해변 음악콘서트, 청계광장 패션쇼·라이브페인팅, 광화문광장 트리·눈 조각 전시

서울광장이 모래사장 해변이 펼쳐진 휴양지로 변신한다. 실제 바닷가에서 공수해온 15t의 모래벌판 위에는 아자수와 파라솔이 세워지고, 잔디광장에는 텐트와 빈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오는 10~11일 서울 도심 3개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3색(色) '2018 서울 문화로 바캉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미니 인공해변이 조성된 서울광장에서는 영화음악콘서트인 '서울씨네뮤직'과 영화를 본 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서울시

'모기장 영화제'가 열린다. 행사 첫날에는 인디를 테마로 밴드 공연과 독립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둘째 날 테마는 클래식으로 클래식·재즈 공연과 멜로영화물을 즐길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는 10일 패션쇼, 그라피티 라이브 페인팅, DJ·비보이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11일에 열리는 거리시각예술

축제에는 일러스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60명이 현장 경연에 참여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11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눈 조각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6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 행사 당일 12팀에는 눈 조각 작품을 직접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 /김현정 기자

6·25전쟁 이후 서울 모습 담은 연구서 발간

서울역사편찬원, 1950년대 서울 수록

6·25 전쟁 이후 수도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

서울역사편찬원은 6·25전쟁이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별로 조명한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서에는 ▲전쟁 기간 북한의 서울시 점령정책 ▲환도 논의 및 시도가 지닌 정치적 의미 ▲전후 도로·교량의 재건과 시민의 역할 ▲미아리 난민정착사업의 전개 ▲구호물자 도입에 따른 서울사람들의 식생활 변화 ▲전쟁고아와 부랑아의 발생과 정부 대책 ▲용산 미군기지의 설치와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 등을 다룬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책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1954년부터 도로 복구와 보수에 나섰다. 도로 건설에 원조자금을 배정하고, 보수자재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에 아스팔트 공장을 세웠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환도(정부와 수도



한강대교 복구 준공식. /서울역사편찬원

의 복상)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승만 정부의 환도설로 인해 주택값과 물가가 폭등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시와 미국 원조기구는 시민 구호와 정착, 주택난 해소와 자활을 표방하며 난민 정착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장 부지 제공·관리와 관련해 비리가 만연했고, 정착지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철거가 이뤄져 또 다른 난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서 종이배 레이스를... '한강몽땅 경주대회' 연다

오는 10~12일 잠실한강공원서 열려 무더운 여름, 직접 만든 종이배로 한강을 건너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12일 잠실한강공원 잠실나들목 인근 둔치에서 '2018 한강몽땅 종이배 경주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는 골판지로 직접 배를 만든 후 한강에 설치된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경기 25팀이 출전해 회차별 1

등을 선정, 전체 기록을 측정해 시상한다.

종이배 경주대회 참가 신청은 9일까지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400팀을 모집한다. 현장 접수는 온라인 티켓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일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대회 당일 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거나 팔당댐 방류량이 1500m³/sec 이상이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시는 구조



한강몽땅 종이배 경주대회 참가자 모습. /서울시

선 3대와 인명구조요원 9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돈의문전시관서 '골목길 동네인문학 강좌'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돈의문전시관에서 '골목길 동네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좌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총 4회 열린다. 돈의문전시관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교육의 첫 번째 주제는 '아지오와 한경, 돈의문전시관이 되다'이다.

수업은 전시관 기획과 조성에 참여한 역사·도시사·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듣는 특별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돈의문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